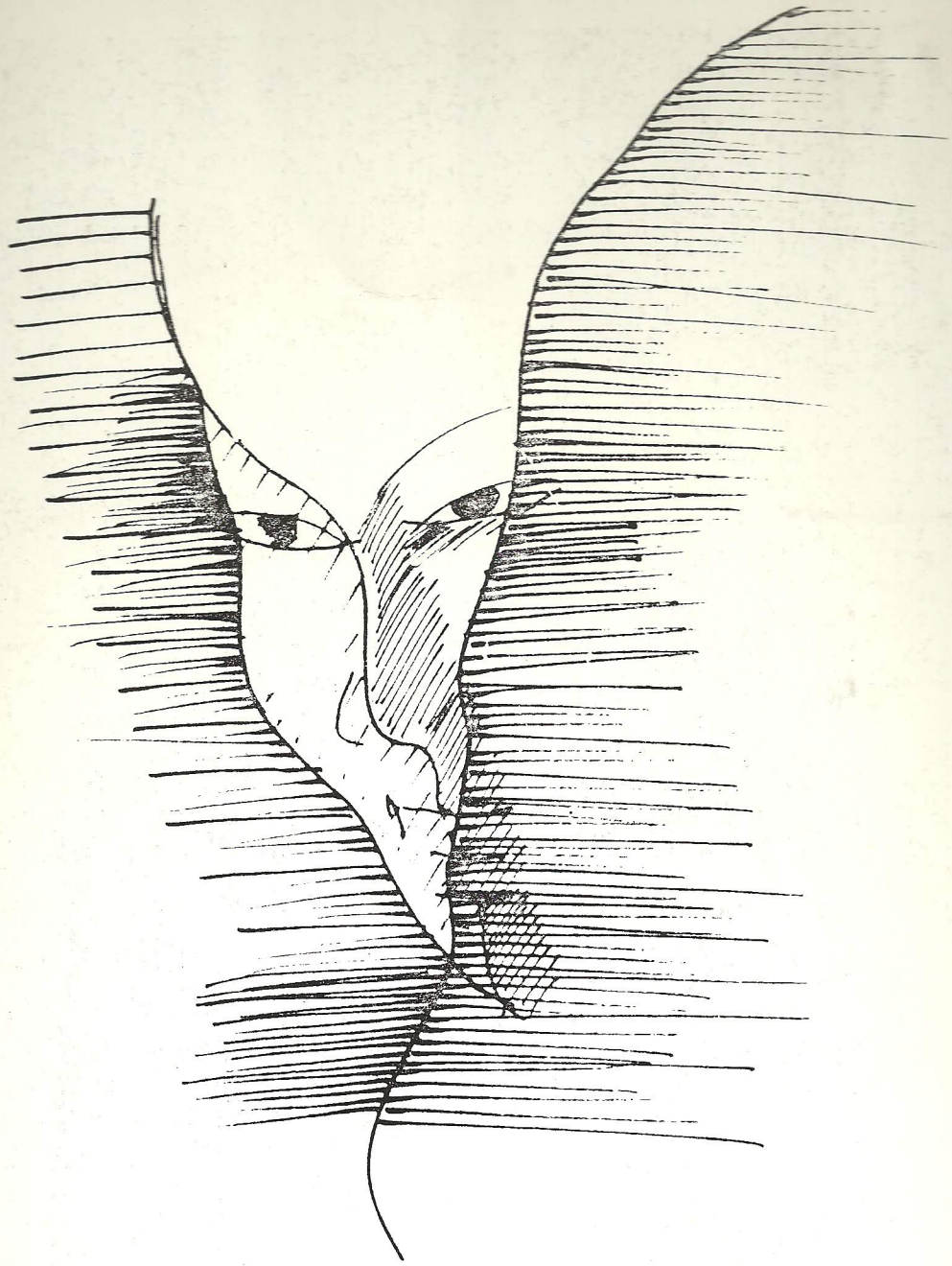




**KUI - IN CHUNG
& DANC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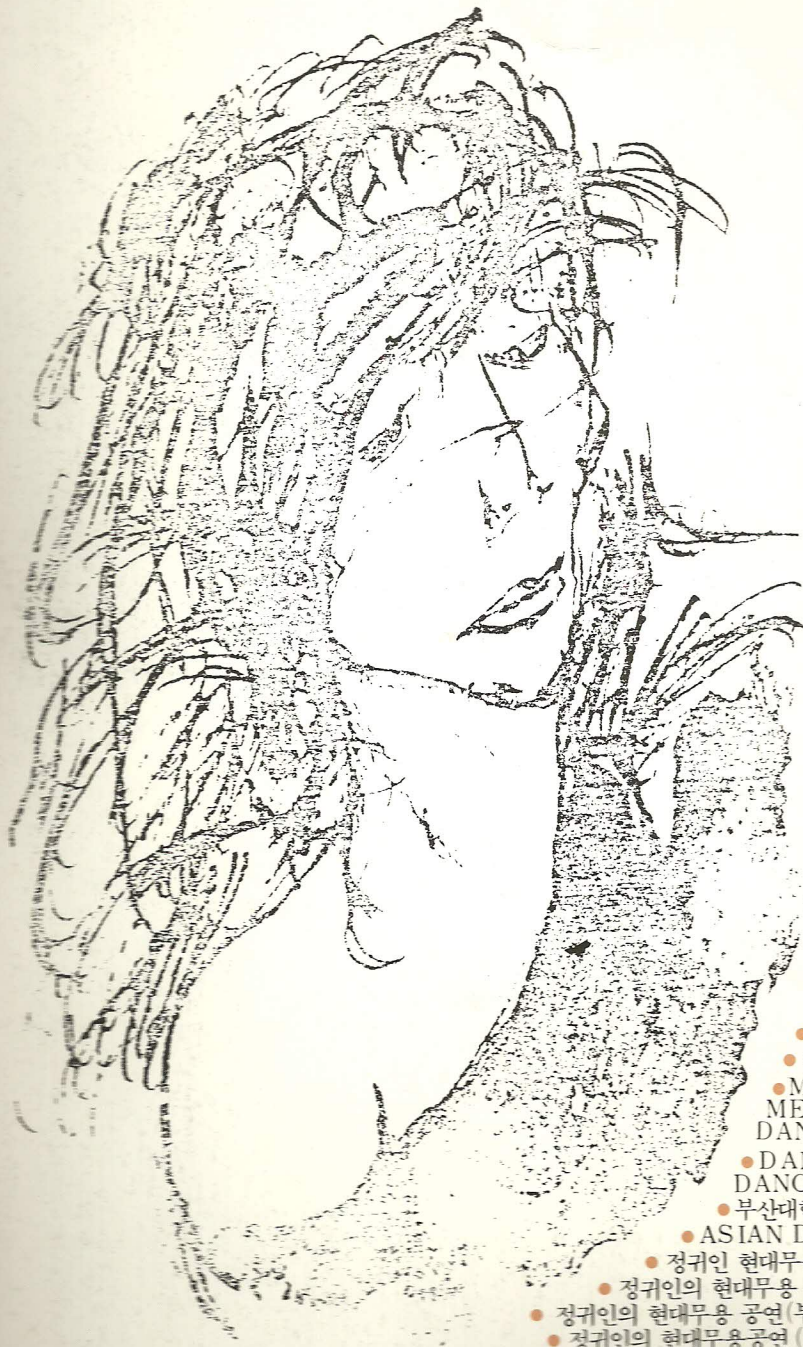


鄭貴仁의 現代舞蹈

動動·土偶·끝없는 끈의 끝 Fantasy

1985년 11월 25일(월) 낮 4시/밤 7시 30분 ● 호암아트홀

綜合文化그룹  制作



정귀인 (1953-)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무용학과 졸업(M. A.)
- 미국 COLUMBIA 대학교 대학원 무용교육학과 졸업(M. F. A.)
- MARTHA GRAHAM SCHOOL-AMERICAN DANCE CENTER
MERCE CUNNINGHAM SCHOOL-CLARK CENTER
DANCE NOTATION BUREAU 수학(1979-82)
- DANCE CONSTRUCTION COMPANY-BICYCLE DANCE COMPANY 단원(1980-82)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1983-)
- ASIAN DANCE THEATRE 와 공연(1981-82)
- 정귀인 현대무용 발표회(M. CUNNINGHAM THEATRE-1982)
- 정귀인의 현대무용 공연(부산산업대 연주홀·1984년 11월 2일)
- 정귀인의 현대무용 공연(부산시민회관대강당·1985년 8월 14일) - 광복 40주년 기념
- 정귀인의 현대무용 공연(대구시민회관대강당·1985년 10월 10일) - 대구 세립무용

침잠한 바다.



안무 정 귀인

바다는 철길 물높이를 만들어 대고도 어둡함으로 하여 그냥 침잠만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벌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심이 간다. 출고 어둡고 따뜻하고 또는 더웁다는 말초적 감각이나 직감할줄 아는 연대에 무엇이 그리 할 말이 많아서 “춤”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오늘 또 이 광명한 세상에 개안을 짐작한단말인가. 행위함의 두려움이 아니라 행위가 수평대 위에서 꼭 예질하는 그순간 순간들의 의미가 마땅치 않아서 미루고 미루었던 행위들. 참으로 잠이오지 않았던 시간들이 지금 한 덩어리로 몰려와 나보다 먼저 내 침상에 잠들어버린 이 불면증들. 그러나 어찌하랴, 행위하지 않음은 내죽음이었으므로 나는 나의 잠들을 포기하지 않은채 달리듯 뛰고 뛰듯 달리어 지금 이곳쯤에 와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부산대학교와 많은신선배님들, 후배님들…… 감사합니다.

더 작은 女子의 더 큰춤



金正律 (綜合文化 그룹 태·멘 會長)

춤을 추는 사람이 있다.

바람을 따라서 때때로 바람을 가르고 우뚝 선다. 춤에 기대어 보낸 목숨 - 움직이면서도 움직이는게 두렵고 펼치면서도 펼쳐놓은게 이념 마음에 차지 않는다. 바람처럼 불었다가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이내 빛들이 무수히 무대에서 자수정처럼 쪼개지고 어둠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 얼마나 아름다운 꿈의 세계이랴.

예술가 鄭貴仁의 뉴욕 소식을 아내에게서 접한 것은 수년전이다. 梨大와 梨大大學院을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닦은 그녀의 춤은 작은 그녀의 몸을 통해 수많은 빛을 발했다. 나는 늘 鄭貴仁의 춤을 궁금해했다. 한 東洋 여성의 더 작은 여자의 더 큰 춤 - 얼마후 그녀는 한국에 돌아왔고 덕성 국립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때 만났다, 鄭貴仁을. 그녀는 연습복 위에 검은 웨타를 슬더처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釜山에서였다.

나의 한 고향의 같은 마을에서 자란 경험이 있었다. 그녀의 歸國公演이며 첫 서울公演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여 國관을 벌인다. 근사한 藝術家의 뒷일이나마 다소 맡게 되었다는데 나로서는 큰 기쁨이다. 綜合文化 그룹인 「태·멘」은 백여명의 文化勞動자들이 이땅의 出版, 演劇, 映畵 公演 등 文化界 발이랑에서 막머슴처럼 일한다. 순수한 힘으로 文化를 수

직이동 시켜보겠다는 나름대로의 企圖原則이 있다. 「尹東柱 詩人の 밤」이라든지 빼어난 발레리나 洪貞姬 敎수의 발레公演 등은 商業主義 文化를 이탈해보자던 순수문화공연이었다. 그래서 이 鄭貴仁의 現代舞踊은 티없는 순수예술공연이다. 이미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았던 그녀의 멋진 춤판을 우리도 기대하고 있다.

함께 수개월을 땀흘리고 애를 쓴 부산대학교 무용과 여러분의 서울 (호암아트홀) 公演에 감사 드린다.

寶石처럼 깎이고 깎인, 鄭貴仁의 춤 - 확실히 다른 幻想의 場이 펼쳐질 것이다.

춤을 추는 사람이 나는 좋다.

鄭貴仁의 춤에서 발하는 그 세련성 - 나는 춤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좋아한다. 귀국무대 곁에 서있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다.

무대에서 또 연습장에서 학교에서 鄭貴仁이 빠져나오면, - 나는 그녀보다 나이가 더 많아도 - 그녀에게서만은 이상하게도 누나냄새가 난다. 춤을 사랑하는 鄭貴仁은 이미 求道의 길에 서서 침착한 모습으로 事物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이다.

To Whom It May Concern,

Qui In Chung has asked me to write a few words on her behalf--- and it gives me the greatest pleasure to do so.

I first met Qui In when she was enrolled in the dance education program at Columbia Teachers College here in New York City. During that period I had ample opportunity to observe her both as person and artist since I am both instructor and musical consultant for the program.

그녀의 매력과 온화한 유머

Her work in my classes was always imaginative and well prepared. And I feel that both myself and her fellow students were enriched by



sibility which is deeply

he choreographed and performed concerts was especially

ful concert of her own works two after she had recieved

cterize as "weighted gracefulness of ritual which---for me at and purpose.

rm and quiet humor. And I have

t that will further her work.

찰스 E. 달보텐 (콜롬비아대학원교수)

이번 공연을 위하여 본인이 정귀인씨의 활동상황을 쓰는 일은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나는 정귀인씨가 이곳 뉴욕시에 있는 콜롬비아 사범대학의 무용교육프로그램에 입학했을 때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교육과정의 강사이자 음악담당자로 있었던 나는 그 기간동안 정귀인씨의 인간적인 면모는 물론, 예술가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수업중에도 그녀의 무용은 언제나 풍부한 상상력을 보여주었고 또 충분한 연습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물론 그녀의 동료들은, 민족적인 풍토에 크게 영향을 입은 듯한(향토적인?) 독특한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그녀의 작업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에서 매년 개최하는 춘계 공연에서 그녀가 안무하고 출연한 독무 "여인의 방"은 특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1,2년 후에 그녀는 머스 커닝햄 스튜디오에서 성공리에 데뷔 공연을 마쳤습니다.

나는 그녀의 독특한 무용양식을 "중후한 우아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적어도 내게 있어서) 그녀의 모든 작업은 그녀의 춤에 높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일종의 의식에 따르는 기본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당한 매력과 온화한 유머를 지녔습니다.

정귀인씨는 앞으로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무한한 자기영역을 개척해나가고 훌륭하게 이룩해갈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Charles E. Dalbotten
Charles E. (Ted) Dalbotten

Charles E. Dalbotten

GARRARD DANCE COMPANY, INC.

TELEPHONE 212/674-6868 • 155 WOOSTER STREET • NEW YORK, NEW YORK 10012

Kui-In Chung
Paemen
C.P.O. Box 12
Seoul
Korea

Dear Kui-In;

The following is a quotation that you may use for promoting your concert.

Kui-In Chung is a gifted and sensitive dancer and choreographer. She has a lovely lyric quality and a strong stage presence.

Best wishes,

Mimi
Mimi Garrard

투철한 舞蹈精神을 소유



미미·제라드

뉴욕 「미미·제라드」무용 연구소

정 귀인은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뛰어난 감성의 무용가이며 안무가이다. 그녀는 사랑스럽고도 서정성이 풍부한 자질을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무대 위에선 힘 있는 연기를 한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Mimi



Laughing Stone

Artistic Director: Sin Cha Hong

정귀인 공연에 부치어...

정귀인 공연에 부치어...

작가, 그리고 동시에 그 인간을 생각할 때, 그 작가로서 나의 큰 인상을 나에게 던져주는 시적인 것이 혼란 예이다. 그가 작가로서 큰 인상을 나에게 던져주는 시적인 것이 혼란 예이다. 그가 작가로서 큰 인상을 나에게 던져주는 시적인 것이 혼란 예이다. 그가 작가로서 큰 인상을 나에게 던져주는 시적인 것이 혼란 예이다.

정귀인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뉴욕에서 7~8년 전의 일이다. 그의 첫인상은 전형적인 우리 일반 사람들로서의 무용가 차림이 아니고 지독히 학구적인 열정적인 듯한 모습이 우선 마음이 끌렸다.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힘 있어 보이는 허드 결코 예쁜 춤을 출 것 같지 않은 반가운 기대, 언젠가 나도 무용수임을 보여 주겠다는 만만치 않은 입술 표현, 그리고 꼭 쥐고 있는 듯 싶은 그녀의 주먹.

정귀인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뉴욕에서 7~8년 전의 일이다. 그의 첫인상은 전형적인 우리 일반 사람들로서의 무용가 차림이 아니고 지독히 학구적인 열정적인 듯한 모습이 우선 마음이 끌렸다.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힘 있어 보이는 허드 결코 예쁜 춤을 출 것 같지 않은 반가운 기대, 언젠가 나도 무용수임을 보여 주겠다는 만만치 않은 입술 표현, 그리고 꼭 쥐고 있는 듯 싶은 그녀의 주먹.

작가, 그리고 동시에 그 인간을 생각할 때, 그 작가로서의 이미지가 나를 더욱 압도시키는 것이 혼란 예이다. 그가 작가로서 큰 인상을 나에게 던져주는 시적인 것이 혼란 예이다. 그가 작가로서 큰 인상을 나에게 던져주는 시적인 것이 혼란 예이다.

그리고 그의 작업을 대하기 전 그 인간을 가까이 알고난 후 그의 작업을 대하기가 두려워진다. 혹시 작가로서의 실망을 던져주는 것은 아닐까 하고

정귀인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뉴욕에서 7~8년 전의 일이다. 그의 첫인상은 전형적인 우리 일반 사람들로서의 무용가 차림이 아니고 지독히 학구적인 열정적인 듯한 모습이 우선 마음이 끌렸다.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힘 있어 보이는 허드 결코 예쁜 춤을 출 것 같지 않은 반가운 기대, 언젠가 나도 무용수임을 보여 주겠다는 만만치 않은 입술 표현, 그리고 꼭 쥐고 있는 듯 싶은 그녀의 주먹.

그때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좋은 후배를 하나 얻게 되는구나 하는 반가움이 넘쳤다. 나의 기대는 더욱 굳어진 것이다.

그런데 졸업 후 뉴욕 커닝햄 스튜디오 공연장에서 무용발표회를 갖는다

는 소식을 받았다.

그것도 소품이 아닌 30분 이상짜리의 작품들을 갖고서. 그때 제목은 "아리랑" 그리고 "맨하탄"으로 10여 명이 넘는 군무였었다.

그 제목들도 모두 거창하다. 처음 무용 발표회치고는 대담한 일이었다. 항상 기대가 앞서면 실망이 따르기 마련이라 나는 지난날의 모든 기대를 던지고 처음 대하는 빈 마음으로 그녀의 무용을 보았다.

역시 그녀의 만만치 않은 용기, 대담성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작가로서의 큰 씨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씨이 터서 자라 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다.

그후 그녀는 정귀인답게 한국에 돌아가 후배를 양성하며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았다. 작업이나 교육에나 정열이 넘치는 모습이다.

이번에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태·멘 기획하에 그녀가 공연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적지 않은 기대를 주는 것이다.

독특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정귀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무엇일까 멀리서나마 절레인 마음으로 그녀의 공연에 촉매를 든다.

1985. 11. 뉴욕에서

Sin Cha Hong



1985
De Dr #45
NY 10027
8913

mi-In Chung has requested a statement in connection with her
concert in Seoul, and I am more than pleased to respond.

mi-In Chung is one of the most extraordinary dancers, and intense
as I have known. Her extraordinary background in both Asian
dance, and the depth of her physical and artistic realisation of
her a unique figure. The skill and humanity of her art make her
be seen, and to be followed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her

Sincerely,
Robert Ellis Dunn
Robert Ellis Du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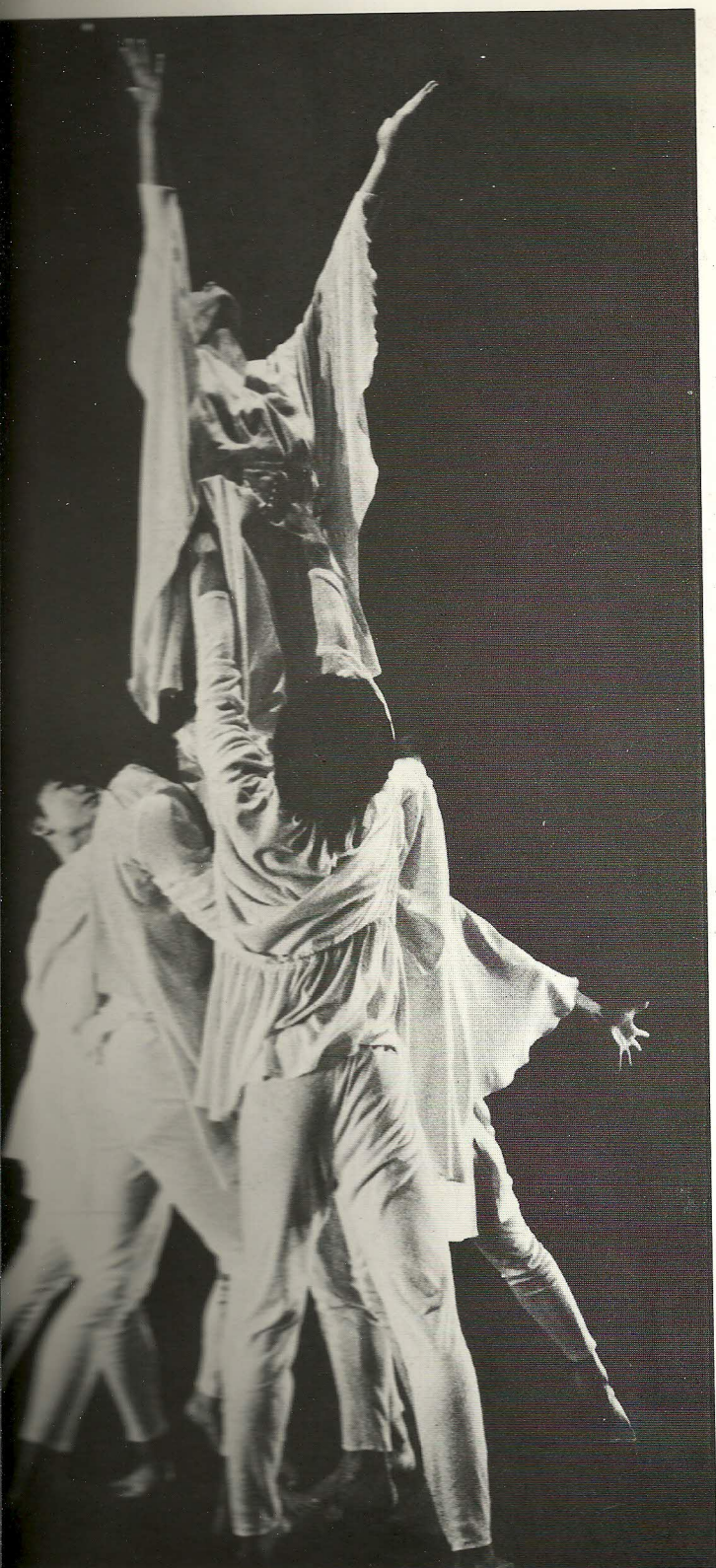
ty, Graduate Program in Dance Education, Co
lege, 1970-82.
ntly Visiting professor of Dance, University of Maryland,
ounty.

천부적인 재능의 鄭貴仁

로버트·에일즈·던
콜롬비아 사범대학 무용학과 졸업
1970-82 발티모어 주, 메릴랜드 대학의 무용학과 강사.

정 귀인 씨는 내가 여태껏 보아온 가장 뛰어난 무용가 가운데 한 사람이
며, 특히 투철한 무용 정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동서양 양쪽에서 공부를 했고, 그 양면을 철두철미 신체적,
예술적으로 현실화시킴으로써 그녀만의 독특한 개성을 이루었습니다. 정 귀
인 씨 무용의 기술과 인간애정신(휴머니티)은 그녀를 더욱더 발전이 기대
되는 무용가로 촉망받게 하고 있습니다.

Robert Ellis Dunn



작품해설

1. 동동 (動動) (1984년 안무) - Movement

음악 / KLAUS SCHULZE
안무 / 정귀인

제목은 단지 움직임(movement)을 의미하고, 춤은 끊임없이 약동하는 원초적인 에너지를 나타낸다. 실제 안무 작업에서는 다음의 아메리칸 인디안 나바호족의 민요가 도움이 되었다.

With beauty may I walk.
With beauty before me, may I walk.
With beauty above me, may I walk.
With beauty above me, may I walk.
With beauty below me, may I walk.
With beauty all around me, may I walk.
In old age, wandering on a trail of beauty, lively, may I walk.
In old age, wandering on a trail of beauty, living again,
may I walk.
It is finished in beauty.
It is finished in beauty.

2. 토우(土偶)

(1985년 안무) - Clay figure

음악/강석희
출연/정귀인
연주/대금·김홍식
타담·황인완
가야금·정용운
혼·길덕석
정봉수
박명호
이재천
안무/정귀인



1985년 3월 1일, 우중에 경주국립박물관에 들었다. 여러 신라의 유물이 자마다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토기, 와전, 금관, 불상, 옥구슬, 장신구 등등. 그러나 나의 시선을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것은 토우였다. 아니 그것은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여러 가지 형상으로 빚어진 토우들…… 남자, 여자 새, 이름모를 짐승들……

칼라하고 소박하며 회화적이고 다정한 이 토우들…… 결코 다듬어지지 않고 제멋대로 만들어진 듯한 이 수수께끼 같은 유물들…… 지금부터 일천 년이나 오랜 옛날에 이땅의 선조 신라인에 의하여 빚어진 토우들……

천년의 숨결이, 천년의 역사가 코끝에 느껴지는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천년의 세월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다. 무언지 모를 감정의 응어리가 가슴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 이 충격을 오랜동안 남몰래 가슴에 감추고 언젠가는 무용작품으로 표현해보고자 노력해 왔다. 토우는 오늘날 한갓 우리에게 유물로서 전해지지만, 이 불가사의한 흙덩어리를 통하여 역사를 뛰어넘는 교감을, 즉 신라인과 현대인의 정신적 교류를 작품으로 시도해 보려는 것은 지나친 나의 무모함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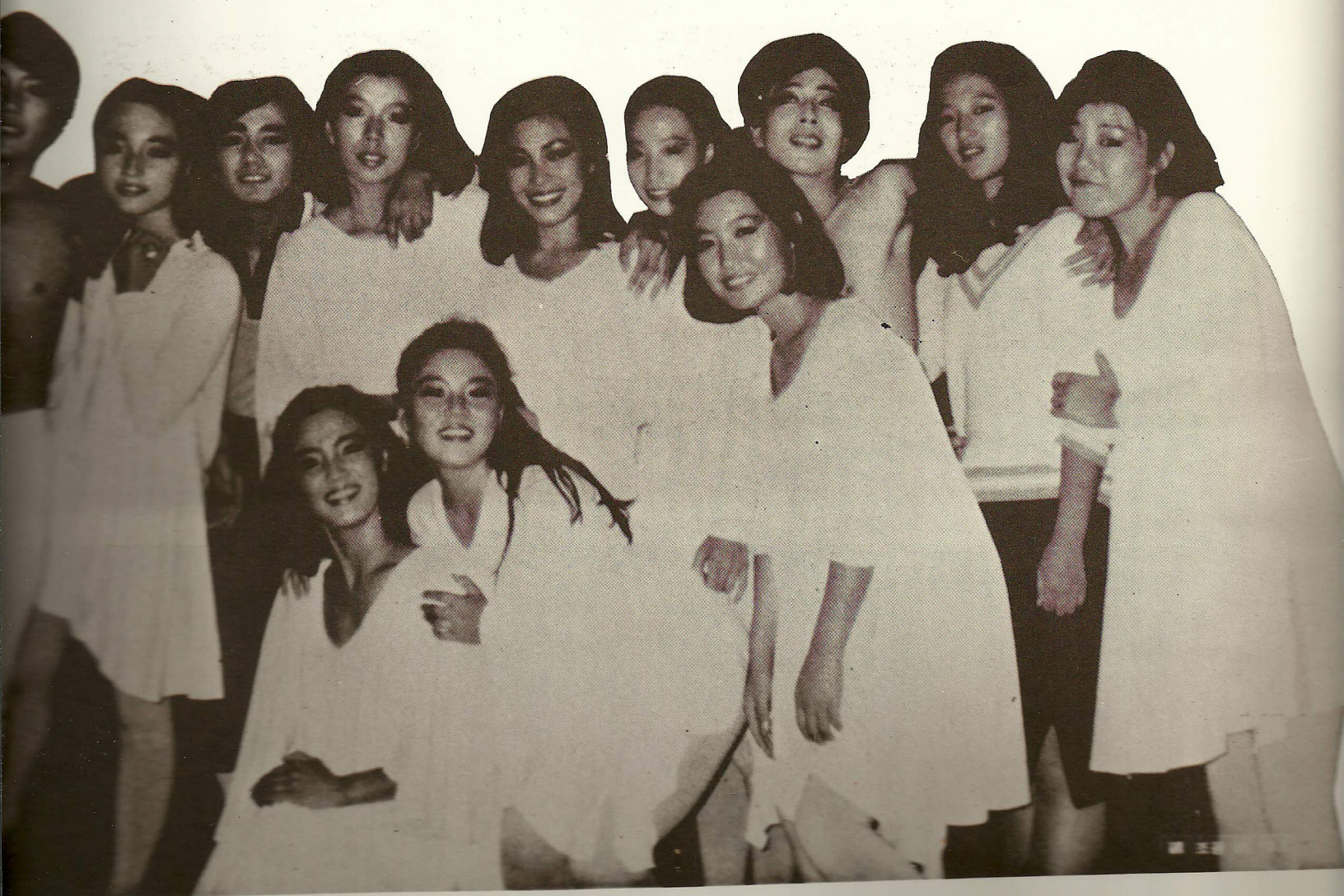
3. 끝없는 끈의 끝

(1985년 안무) - Fantasy

음악/Jugal band - Raga Gurjaree Todi
안무/정귀인

환상은 無限이며 無所不至다.
환상은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고 행복이다.
환상은 平等이고 自由이다.
어느날 아침의 꽃비이고
어느날 밤의 무지개꿈이다.
환상은 음악을 만나서 나래를 편다.
환상은 몸짓과 더불어 나래를 편다.
환상이 나래를 펼치면, 펼치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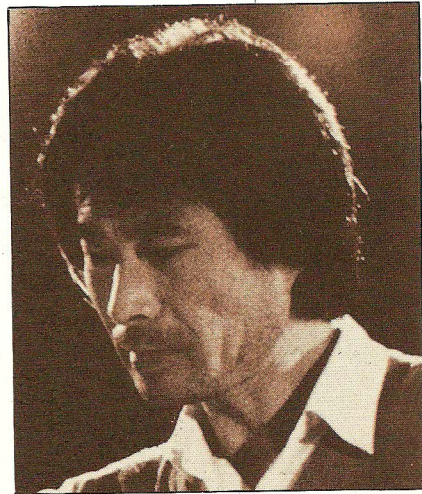
춤추는 사람들 ● 성대영 / 장향선 / 홍순미 / 서영희 / 김진우 / 최찬열 / 김정남
이성원 / 김경미 / 김수미 / 정귀인





의상·배 용

1965. 서라벌 예술대학문예창작과졸업.
 1943. 7월 6일생
 1970. ~현재까지 패션쇼 20여회 개최.
 ●오대역 연출 "태" 김도훈의 "유리동 물원" "안나크리스티" 등 연극의상
 ●현대무용가 "정귀인" "남정호" "장정운" 작품의상
 1980. LA 힐튼호텔 패션쇼
 1981. 파리 브레타 뽀르떼 출품.
 1982~3 뉴욕 F.I.T. 수료.
 1984. 비라노 오리지날 시스템 패션스쿨 수료
 1985. 파리 브레타 뽀르떼 출품, 오사카 의류박람회 출품.
 현: 동주여자전문대학 의상과 강사, 사단법인 한국하이패션협회이사.



조명디자이너·조일도

劇作家
 演出家
 (주)태·멘 대표理事

조명디자이너·정대식

(호암아트홀) 조명감독